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③

飛錫和尚高聲念佛三昧寶王論云
비석화상고성염불삼매보왕론은
浴大海者 已用於百川 念佛名者
욕대해자 기용어백천 염불명자
必成於三昧 亦猶清珠下於濁水
필성어삼매 역유청주하어탁수
濁水不得不清 念佛投於亂心
탁수不得不清 念佛投於亂心
탁수부득불청 염불투어난심
亂心不得不佛 既契之後 心佛雙亡
난심부득불불 기제지후 심불쌍망
雙亡定也 雙照慧也 定慧既均
쌍망정야 쌍조혜야 정혜기균
亦何心而不佛 何佛而不心 心佛既然
역하심어불불 하불이불심 심불기연
則萬緣萬緣 無非三昧
즉만경만연 무비삼매
謹復惠之於起心動念 高聲稱佛哉
수부환혜지어기심동념 고성칭불재

近世類類見聞如此之人 皆由不知
근세빈빈견문어차지인 개유부지
十界依正 善惡因果 唯心所作
십계의정 선악인과 유심소작
無體可得故也
무체가득고야

문수보살이 말한 <반야경>에 '염불
해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얻는다'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을 모르
면 도리어 견애(見愛)의 정을 가져 부처
의 형상을 관하고, 부처의 이름을 생각
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면 흔히 마귀에
끌려서 미치광이 것이나 하며 공부가
헛되어 일생을 망친다. 요즘 이런 사람
을 자주 보는데 그것은 다 사방세계의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와 선악의 인과
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 그 본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비석화상의 <고성염불삼매보왕론>
에 '큰 바다에서 목욕하는 이는 이미 온
갖 사물들을 쓰는 것이고, 부처의 이름
을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삼매를 이룬
다. 그것은 마치 물을 맑히는 진주를 흙

或於坐中 見天人菩薩像
혹어좌중 견천인보살상
혹어來相好具足 或端正男女
혹어來相好具足 或端正男女
혹어래상호구족 혹단정남녀

부처의 이름을 생각하는자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탕 물 속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염불을 산란한
마음에 던지면 산란한 마음이 부처가 되
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합해지면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게 된다. 모두 잊
는 것은 선정(禪定)이요, 모두 비추는 것
은 지혜이다. 선정과 지혜가 고르면 어
떤 마음이 부처가 아니겠으며, 어느 부
처가 마음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부처가
그러하다면 온갖 대상과 온갖 반연이 삼
매 아님이 없을 것인데 누가 다시 마음
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고성으로 부
처를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及諸恐怖之相 說諸種種幻惑之事
급제공포지상 설제종종환혹지사
或雖非
혹수비
外現之相於自心中 隨順順事 惡覺情見
외현지상 자자심중 수순마사 악각정견
不可具陳 當此之時 昏迷不省
불가구진 당차지시 혼미불성
無慧自救 橫權魔網 良可傷哉
무혜지구 횡권마망 양가상재

또 혹 좌선하는 동안에 천인(天人)이
나 보살상, 혹은 여래의 원만한 상호(相
好)나 단정한 남녀나 혹은 온갖 무서운
형상이나 갖가지 현혹시키는 일을 말
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밖으로 나
타는 형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속
에 악마의 일을 그대로 따르며 나쁘게
깨달은 그릇된 소견 따위는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정신
이 혼미해서 살필 수가 없고 자기를 구
원할 지혜가 없어서 악마의 그물에 걸
리고 마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文殊所說般若經中 明念佛
문수소설반야경중 명念佛
得一行三昧者 亦同此意也 不了此意者
득一行삼매자 亦同此意也 不了此意者
득일행삼매자 역동차의야 불로차의자
却將見愛之情 觀彼佛相 念彼佛名
却將見愛之情 觀彼佛相 念彼佛名
각장견애지정 관피불상 염피불명
日久歲深 多爲魔魅 所纏狂浪走
일구세심 다위마매 소섭 전광낭주
虛勞功夫 傾覆一生
허로공부 경복일생

가까이서 뵈 큰스님

성수스님

황석산 황대선원 조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지금 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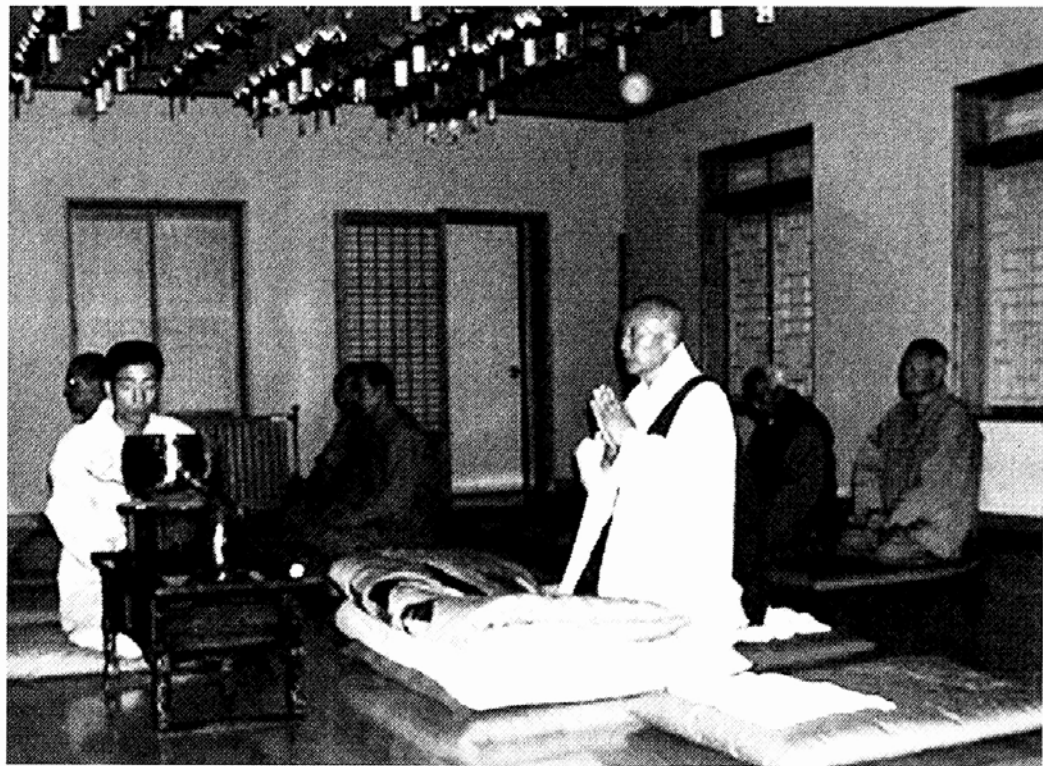
수십 년 전 갓 출가했을 때 운허 스님께
게 '불살생(不殺生)'의 뜻을 묻고,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풀이에 맞서,
그 뜻을 "죽지 않는 게 사는 것이라고 풀이
해야 부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고 말해
좌중의 스님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 황산(嶺山) 성수 스님. 스님은 경남
거창과 함양의 사이에 있는 안위 황석산
황대선원에 주석하고 계신다.

황석산 자락을 따라 흐르는 개울을 지나
조금 올라가자 6~7개의 건물로 구성된
있는 황대선원이 보인다. 먼 곳에서 한 스
님이 이 쪽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가까
이 다가가보니 바로 성수 스님이다. 예를
올린 후 불속 '불살생'의 뜻을 물었다.

"그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가엾게 여겨
가르치신 것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을의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
서 부처님이 '불살생'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은 고탈(苦海), 즉 생사의 바다에서 나오
라는 법고를 울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죽
지 않는 게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도 그 법고의 소리를 듣자는 선(禪)적 표현
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자신에
게 해당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남의 목숨
만을 죽이지 않는다는 문자적 의미만을 뜻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요. 부처님
근본사상이 '생사자재법(生死自在法)'이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성수 스님은 7년 전 대나무가 유난히 많
은 황석산 자락이 마음에 들어 잠시 머물
요양으로 토굴 한 채를 지었다. 그런데 성
수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서 가까운 곳은 물론 먼 곳에서 스님을 찾
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
작했다. 스님 문하에서 참선하기를 간절히
청하는 사람까지 수가 점점 늘어나 법당과
선원 등이 차례로 들어섰고, 지금의 황대
선원으로 변모했다. 선원은 이 곳 안위에서
'큰 스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는 '불자들이 배울 게 많은 시
민선방'으로 소문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
니까. 순수한 원력을 세우고, 정성을 쏟으
면 하늘도 그만될 만큼하여 그 원을 이루
어 준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이 마음을
알았으면 해오 극(極)에 달(達)하도록 지극
하면 반드시 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발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성수스님은 인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서원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

세수 79세인데도

새벽·저녁 예불 참석

친견 요청 모두 응해

스님의 원력이란 다름 아닌 남녀노소(男
女老少)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
는 각자 그릇에 맞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불교는 과거처럼 산중 사
찰에서 전통적인 교학과 수행으로 전해지
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관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스님의 지
론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지는 그런 공인선
생이다.

물론 황대선원은 스님의 원력에 부합하
는 곳은 아니다. "원력을 성취해 가는 과정
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 도량을 세

울 더 좋은 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수행하신 모든 이
들이 그 도량을 세우는 데 반석을 다져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스님의 말이나 행
동에는 여든에 가까운 세수(世壽)와는 어
울리지 않는 힘과 용기가 있다.

"스님은 현재 세수가 79세인데도 어떤
법회든지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또 친견을
요청하는 불자들을 일일이 만나는 등 젊은
사람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있습니
다. 선원에서 참선하고 있는 20여 불자들
에게 지도해 주시는 스님 때문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스님의 원력에 깊이
감복하고 또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기분이 들
어 더욱 용맹정진하지요."

1개월 남짓 황대선원에서 참선에 매진
하고 있는 박도식(52·서울) 씨는 자상하
게 지도해 주시는 스님 때문에 정진하는
재미가 날로 더해진다고 토로한다. 스님은
선원을 찾은 재가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
하는 것은 물론 새벽과 저녁 예불에 꼬박

꼬박 참석하고, 매일 3~4차례의 수계법회
나 초경 및 특별법회도 마다하지 않으신
다. 특히 스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불자들
을 잠깐이라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다.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전에 이 책(〈선행
문〉)을 주었던가? 예불 다 올랐으면 얼른
돌아가. 지금 기자가 와서 바쁘니까 다음
에 오지." 기자와 인터뷰 중에 스님의 방문
을 열고 들어선 6명의 여성 불자들이 책을
받아 들고 생글생글 웃으며, "스님 건강하
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저 책
은 안 주세요요" 함양, 김천, 거창 등지에서
왔다는 이들은 황대선원의 신도임을 자처
하는 보살들이다.

황대선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불속 연등
을 달았다. 스님은 원래 이 곳을 토굴로 여
겨온 터라 연등을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아지고, 황대선원에
서 축원을 올리고 싶어하는 바람이 커져서
연등을 달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있는 동안 스님을 찾았을 사람들은 이들
보살들이 아니다. 6시 저녁 공양을 전후로

미안마의 큰스승
이신 자나카 스님 향한 위빠사나 수련안내
부다와 담마와 상가에 귀의합니다.
위빠사나란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서 대각
(大覺)을 성취하셨던 수행방법이고 또한 45년의 교
화기간동안 수 많은 구도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
던 가장 정통성있는 방정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위빠사나의 뛰어난 지도자로서 세계에 많이
보급하고 계신 이신 자나카 스님께서 이번에 방한 하시어,
아래와 같이 위빠사나 수련법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스님의 육성법문과 개인지도도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
의 수행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뜻있는
분들의 참여기대합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
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
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
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현시대의 화(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탄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
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
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
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채가 화에
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
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
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
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
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려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
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